

이강씨 부인 투신자살

94. 7. 12

경찰, 남편피습관련 추정

속보=광주 재야운동가 이강(47)씨 피습사건 직후 종적을 감췄던 이씨의 부인 이순오(47)씨가 사건 당일인 지난 9일 오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부인 이씨가 지난 9일 오전 7시10분께 전남 담양군 창평면 의항리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에 갑자기 뛰어들어 광주쪽으로 달리던 경남7 아9716 2.5t 화물차(운전자 안강석·45)에 치여 숨진 사실을 11일 오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5년여 전부터 우울증세를 보여온 부인 이씨가 최근 정

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최근 2~3일 동안 이씨가 서울 세미나에 다녀온 뒤 부부가 심하게 말다툼을 했던 점 △9일 새벽 4시께 잠을 깨 거실로 나온 셋째 아들 창혁(15)군에게 현관문쪽에 서 있던 부인 이씨가 “들어가 자라”고 말한 뒤 잠적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부인 이씨가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남편을 흥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이씨가 지니고 있던 10만원짜리 수표 4장을 추적해 뒤늦게 신원을 확인했다.

광주/이수범 기자